

## 종교칼럼

김 원 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 단 것은 잘 화하고 흰 것은 색을 잘 받는다

주름이 지면 그것을 잘 녹이고 펴야 쾌활하고 좋아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구김을 펴고 마음의 맷물을 빼는 일에 항상 공들여야 한다. 명예에 물들어 있는지, 식탁에 물들어 있는지, 재물에 물들어 있는지 살펴서 그 물들어 있는 것을 세탁하고 가려진 마음을 벗겨내는 것이 청정일념을 만드는 선 공부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그 마음으로 죽으면 열반에 드는 것이며, 살아있을 때도 텅 빈 그 마음을 늘 가지면 열반락을 누리는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동안 선진 열반 소식을 듣고 낙루(落淚)하자, 제자들이 크게 상심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그러자 “마음까지 상하기야 하리오마는 내가 이 사람과 같으면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도다”라고 했다. 공자는 아끼던 제자 안연(安彥)이 죽자 크게 슬퍼하며 “내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는 해야지.”라고 하셨다고 한다. 이와 같이 텅 빈 마음을 많이 단련하면 말은 ‘죽일 놈’이라고 해도 그것마저 속까지 배지 않고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해도 그 애정이 속이 상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선(禪)을 하는 목적으로 마음 바탕을 맑고 깨끗이 하기 위함이다. 마음이 구겨지면 그것을 법 다리 미로 펴야 하고 또 마음에 물이 들면 그문을 빼는 일에 도인이 되어야 한다. 무명(無名)에 가리고 덮여있을 때는 선입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와 선으로 끊임없이 정진 적공을 하여 청정심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

마음의 더러운 물을 빼는 일에 공들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성탕에 가서 싱고 모시면서 빠질 때도 있고, 또 염불하면서 해결될 때도 있고, 또 호흡을 하면서 비워질 때도 있다. 내 마음이 뺏끔하고

비심과 자신이 종교를 사랑하는 마음도 내야 사람도 잘 다스릴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감수화 공부를 잘해야 한다. 달갑(甘)자, 받을 수(受)자, 회합(和)자, 회합을 하려면 사람이 조급은 모자란 듯하고 달콤해야 사람이 따르는 법이다. 사람이 처음 공부할 때는 종명하기를 바라는데 종명해진 후에는 다시 어리숙하기를 참 어렵다. 너무 종명하고 너무 밝은 사람 옆에 가면 함께 있는 사람이 불편하다. 공부가 출기위(出家位), 여래위(如來位)가 되려면 적어도 어리숙하게 보여서 상대방이 나를 달콤하게 생각해야 회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생전 대산종사를 뵈면 어느 때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무심도인 같은 때가 가끔 있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종명해지는 단계까지 올라가서 사리를 훤히 알기도 어렵지만 그 빛을 감추기는 더욱 어렵다. 이것을 산으로 비유하면 정상에 오르는 것은 출기위이고 다시 내려와 시장 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여래이다.

흰 마음을 단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단련해야 선의 진체(眞體)가 드러나고 그렇게 해야 동정역순간(動靜逆順間)에 물들고 막히지 않아서 자유를 얻는다. 또 사람들을 만나서 취사하고 불공을 할 때 또 달콤하고 어리숙하면서 주제를 잊지 않고 불공도 해야 할 것이다. 마음공부를 하면서 최고의 경지에 가려면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어리숙하고 또 때로는 엄한 면이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마음을 단련해야 하겠다.

## 기 고

## 아파트 아파트

강 정 희  
전 중학교 교사·소설가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저 시절만 해도 아파트에 자연 친화적 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 후로 아파트는 리모델링·재건축·신축을 계속 해오며 외양도 내부도 크게 변화하였다. 노래도 새로운 분위기의 곡이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아파트, 아파트’라는 가사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후렴구가 강렬한 노래가 세계적인 무슨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도록 지은,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아파트먼트의 사전적 의미다. 우리 나라 가구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그냥 ‘집’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다.

요즘 지은 아파트는 공간 효율을 위해 발코니를 없애고 창밖에 쇠울타리 높이를 높였다. 이중유리문으로 소음과 외기를 완벽에 가깝게 차단하며 거실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하기가 쉽지 않다. 고층이라면 집 안 거실에서도 마치 절벽 위에서 있는 듯 지상 세계가 아득하다. 단지 내에 공원 놀이터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쉽다. 그에 비하면 전면과 후면에 너른 밭과

나가 있는 오래된 15층 아파트의 3층, 우리집은 마당이 있는 주택처럼 편안하다.

얼마 전 여행 삼아 서울에 다녀왔다. 공연과 전시를 보러 가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큰 시장과 호젓한(호젓하기를 바라며) 한옥마을을 목적지로 정했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것과 현장의 공기를 숨 쉬며 겉는 담사는 감흥이 다르리라 기대했다. (과연 엄동설한 정월의 서울 공기는 대단했다.)

서울은 건물로 가득 차 있었다. 콘크리트와 유리와 철제로 지어 올린 건물들, 서울은 건물의 숲이었다. 우리 건축 기술, 정말 훌륭하구나. 하지만 괜찮을까. 사무실 아닌 주거 건물이 초고층이니.

하지만 문제는 높이가 아닌 가격. 겹겹이 층층이 지어 올린 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수십억 원. 그 가격을 모두 합산해 보면 어떨까. 아마도 헤아리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나라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일지도 모른다. 광주 범우리에 사는 안빈낙도 자연인에게는 두서없이 이상한 생각이 마구 떠오른다.

이렇게나 아파트가 많은데 집이 없는 사람은 또 그렇게나 많다니, 그 점도 이해 불가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시간과 같은 속도로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간극을 따라잡거나 좁힐 수 없다. 성실한 노동 소득만 모아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아파트, 사물의 가격이 정해지는 기본 요건인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도 예외이고, ‘감가상각’이라는 명목에서도 벗어난 특수한 재화인 아파트는 괴물인가.

르 코르뷔지에 등 현대 건축가들이 도시 밀집 지역의

서민을 위해 고안하여 짓기 시작한 아파트는 서울의 경우 높은 가격으로 서민의 생애 대부분을 담보하는 고통이 되었다.

아무래도 조선시대 남산 목적골 선비 허성이 부활해서 금융업자 변부자에게 돈을 대출받아 수도권의 아파트를 모조리 사서 빼어 놓은 성싶다. 심지어 허성이 한둘이 아닌 것 같다. 당시 허성은 제수용 과일을 매점매석하여 유통을 뒤흔들었고, 이어 제주에서는 갓과 망건의 재료인 막총을 사재기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허생들이 제수과일과 막총 대신 아이템을 아파트로 정한 것이 틀림없다. 이 시대의 허생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소위 뷔 좋고 넓고 높은 집, 멋지게 인테리어한 집에 살겠지.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이는 자주 부동산 동향을 살피면서 집을 사야 할지, 산다면 어느 시점에 사야 할지 고민하고, 금리와 대출이자를 계산한다. 자녀가 있다면 방을 마련해 주기 위해 평수를 늘릴 궁리를 해야 한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도 미래의 집값이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 실존 철학적 사유는 사자다. 삶의 기본 조건인 주거 공간 집·걱정, 개인의 둑인가.

실학자 박지원은 일찍이 허생을 내세워 조선 후기 사회현실을 짚어 비판하였으나 해법은 알려주지 않았고 지금도 시원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노력해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질 거라는 낙관을 가진 이도 없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이들은 나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인간을 압도하는 초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서울에서 집을 생각하며 남대문시장과 익선동 골목을 걷고 또 걸었다.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장애인은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설득해야 한다.

공식적인 논의의 자리는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장애인의 말은 자주 요약된다. 이미 검토되었다는 설명 속에서 당사자의 경험은 참고 의견으로 밀려난다. 중요한 결정은 다른 곳에서 내려지고, 장애인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위치에 놓인다. 그래서 같은 요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라는 말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을 뒤로 미루는 선택이며, 현재의 배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기다림 속에서 장애인의 삶은 맴지 서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 왔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 사회는 언제나 누군가의 말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해진 삶은 질문이 되었고, 그 질문 앞에서 기준은 흔들렸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지금도 장애인 권리와 민족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보호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고 결정하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다. 복지는 출발선 일수는 있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장애인은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하는 존재여야 한다.

이 질문은 행정만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지를 묻는 말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존중하기로 선택하는지에서 사회의 방향은 다시 정해질 것이다.

## 기 고

## 삶을 말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바꾼다

배 영 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나는 장애인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장애인 인권활동가로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다. 이 두 정체성은 나에게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어져 왔다. 사회는 누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과연 모두를 시민으로 전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내 삶의 많은 순간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기준과 마주하며 조정해 온 시간이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무엇이 어렵다고 판단되는지가 먼저 주어졌고, 그 판단은 언제나 개인의 가능성보다 사회가 상정한 시민의 모습에 근거해 내려졌다. 장애인의 삶은 늘 조건부였고, 가능성은 허락의 형태로만 존재했다.

나는 오랫동안 이 기준이 왜 나의 삶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지 묻지 못한 채 살아왔다. 삶의 선택지와 참여의 범위는 개인의 의지보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의해 결정되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무엇을 겁내야 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만 나의 삶을 설명해야 했다.

정책과 제도는 흔히 보편을 말한다. 그러나 그 보편이 실제로 누구의 일상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기준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동에 제약이 없고, 의사결정에 즉각 참여할 수 있는 삶이 기본값이 된다.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삶은 예외가 되고, 추가 설명과 보완의 대상으로 남는다.

광주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자처해 왔다. 이 이름은 오랜 역사와 시민들의 투쟁이 만들어 낸 것인기에 가치지 않다. 그렇기에 민주와 인권이 선언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누가 시민으로 인정받는지, 누구의 삶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지를 통해 일상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광주에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예산, 정책이 존재한다. 겉으로 보면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장애인의 삶을 직접 살아보면,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삶을 실제로 지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제도는 있지만, 선택은 제한되어 있고, 가능성이 여전히 조건부다.

정책의 성과는 숫자와 지표로 설명된다. 이용률과 집행률은 행정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장애인이 어떤 선택을 하며 하루를 살아가는지는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누군가는 가능성을 넓히고, 누군가는 반복해서 자신의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여전히 많은 정책은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질문은 선의처럼 보이지만, 장애인을 시민이 아닌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 고정한다.

## 社 說

## 사법부, 엄중한 심판으로 내란 반복 끊어내야

조은석 내란특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400여일 만에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재판부의 판결만 남게 됐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이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나리를 위기에 빠뜨리고 반성도,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는 피고인에게 당연한 구형이다.

특검팀은 특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중형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엄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부대에 의한 현장 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특검의 설명이 없더라도 국민이 모를 리 없다. 46년 전, 5월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주변 전두환은 내란복적살인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사형(1심) 선고 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췄고 특별 사면까지 이루어지면서 전씨는 구속 이후 2년 만에 풀려났다. 사면 이후에도 뉘우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법포 명령 책임자·헬기 사격·암매장 등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를 바랐던 광주 시민들의 소망을 외면했고 오히려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하는 일까지 저질러 지역민의 공분을 샀다.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데 성급하게 죄를 ‘면’해 줬다는 지적 이 여전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은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만담재판’, ‘예능재판’이라는 지적을 들었던 지구연 재판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수치스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적 기준을 보여줘야 한다.

## 정부 전남의대 설립 공식화, 지역숙원 달성해야

정부가 지역 숙원 사업인 전남의대 설립을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며칠 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으로, 보정심의 발표대로라면 정부가 전남의대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2027학년 이후 의사 인력 증원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 오는 2035년에는 의사가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1136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데 따른 것이다.

보정심은 의료 취약지 등 특정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력은 전부 지역의사제 인원으로 적용하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전남도와 순천대·목포대는 통합 국립의대 2027년 개교 및 신설 의과대학에 정원 최소 100명 이상 배정, 전남·동·서부권에 각각 500명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갖춘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노령 인구가 많은 전남은 의료 사각지대다. 지역 민들의 생명권이 달린 숙원사업이 치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도, 학교 등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규 감독이 어떤 색을 더하느냐에 따라서 광주의 축구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고,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다. 앞서 견고한 시스템과 확실한 방향이 없었던 만큼 지도자의 색과 역량에 따라 광주FC는 요동쳤다.

그럼에도 광주FC는 기회의 팀이었다. 이곳에서 많은 선수가 국가 대표로 발돋움했고, 해외 진출의 꿈을 이루기도 했다. 광주FC의 방향은 ‘사람’에서 찾아야 한다. 어떤 지도자가 오더라도 광주FC만의 색으로 지역 선수를 키우고, 이를 더 큰 무대로 내보내면서 지역과 호흡하며 프로 구단으로로서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남달랐던 전임 감독, 상반기 선수 등록 금지라는 악재 속에 이정규 감독과 광주FC가 지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목된다.

/김윤우 디지털·체육부장 wool@

## 無 等 鼓

광주FC가 갈림길에 섰다. 지난 4년 이 정효 감독을 앞세운 광주FC는 ‘정효불’로 광주 축구 역사를 새로 썼다. K리그에 뛰 거운 돌풍도 일으켰다. 기존의 지도자들을 새로 바꾼 이정효 감독, 냉정하게 평가하면 광주FC라 가능했던 결과였다.

광주FC는 ‘배고픈 구단’으로 통한다. 시민단체의 재정적 제약에 ‘야구도시’ 광주라는 한계도 존재했다. 여기에 크고 작은 잡음이 이어지면서 세금을 낭비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